정숙성·스마트함은 기본… '절제된 럭셔리'로 품격 높였다

YG의 카톡 car talk

기아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

입소문 타고 작년 내수판매 6202대
전면 그릴 등 디자인 '풀체인지' 느낌
트렁크에 골프백 4개 넣어도 '여유'

고속주행시 소음차단, 여유 느껴져
스마트 모드시 도로상황 파악 변속

기아 더 뉴 K9.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은 '절제된 럭셔리'를 완벽하게 담아낸 모델이다.

기아가 지난해 6월 선보인 K9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K9'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지만 꾸준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K9은 지난해 상반기 K9의 내수판매 2848대를 기록했으며 하반기내수 판매는 3354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K9의 시승을 통해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 차량은 K9 3.3 터보 가솔린 마스터스 베스트셀렉션2 AWD 모델이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모던함을 담아냈다. 전면은 크기와 너비를 대폭 키운 라디에이터 그릴에 빛이 반사되는 듯한 V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을 적용해 럭셔리한 감성을 구현했다. 후면부는 좌우 수평으로 리어램프를 연결해 와이드한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로형 램프 그래픽은 헤드램프의 그래픽과 통일감을 주면서 정교함을 더 한 느낌이다.

단순히 디자인만 보면 부분변경 보다 풀체인지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과거 K9의 디자인을 연상케하는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내부는 시트의 허리받침, 쿠션까지 확대된 퀼팅 패턴과 고급스러운 리얼우드 소재, 다이아몬드 패턴의 컨트롤러 등을 통해 인테리어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14.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각종 기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편리한 운전을 돕고 있다.

트렁크도 플래그십 세단답게 넉넉하고 충분하다. 좌우로 넓고 깊어서 부피가 큰 캐리어와 유모차 두대를 실어도 부담이 없다. 골프백 4개를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여유로웠다.

승차감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무게감 있는 안정적인 주행감과 운전자의 반응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질주 본능까지 놓치지 않았다. 가속 페달을 밟자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민첩하게 반응했다. 거칠고 불규칙한 노면이나 과속방지턱은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갔다.

주행성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고속주행뿐만 아니라 코너를 돌거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편안하다.

고속구간에서는 터보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 속력을 높여도 안정적이고 여유가 느껴졌다. 고속 주행에서의 풍절음이나 노면 진동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모드'를 활성화 시키자 피로도 크게 줄어들었다. 스마트 모드를 활성화 하자 전방예측변속시스템(PGS)이 작동했다. 기아가 세계 최초 기능이라고 설명한 전방예측 변속 시스템은 단순히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척척 변속하는 게 포인트다. 실제 고속 주행 중 옆 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진행하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도 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정숙성 여기에 스마트를 겸비한 K9은 의전 차량이나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K9은 넉넉한 힘과 정숙성을 갖춘 3.8 가솔린과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3.3터보 가솔린 모델로 운영되고,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Ⅰ,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Ⅱ 트림이 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3.8 가솔린 플래티넘 5694만원,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Ⅰ 6361만원, 마스터즈 7137만원,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Ⅱ는 7927만원이다. 3.3 터보 가솔린은 플래티넘 6342만원, 베스트 셀렉션Ⅰ 6931만원, 마스터즈 7608만원, 베스트 셀렉션Ⅱ 840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CC, 수익성 다변화… 중대형기 도입 속도

진에어, 업계유일 중장거리 노선 운항
티웨이, 내달중 A330-300기종 도입
상반기 총 3대 도입, 싱가포르 등 취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익성 회복을 위해 이미지 변화에 속도를 높인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LCC 업계는 비즈니스석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중대형기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거리 노선만으론 수익성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CC 업계 가운데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곳은 진에어(인천~괌)가 유일하다. 진에어는 지난달 24일 인천~방콕 노선을 재개하려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연기한 상태다. 올해 적용되는 입국자 격리 방침에 따라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진에어를 제외하면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에 가장 적극적이다. 티웨이항공은 재도약을 위해 런던, 파리, 스페인 등 주요 유럽 노선과 LA, 뉴욕 같은 북미까지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며 장거리 노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A330-300기종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총 3대를 도입하고 오는 3월 국내선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키르기스스탄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대형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항

진에어 B737-800.

티웨이 항공기.

후 운수권 및 슬롯 재분배에 앞서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티웨이항공 측은 장거리 기종에 대한 추가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도입을 결정하고 인수하는데까지의 진행 과정이 빠르면 1년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전까지 장거리 노선 운항 준비를 마칠 수 있어 향후 회수된 운수권 미행사로 인해 외국항공사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LCC들이 운수권과 슬롯을 배분 받아 운항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단거리 시장의 경우 LCC들의 진출로 항공권의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중장거리 노선도 경쟁이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항공권 운임도 낮아지는 등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기재 도입과 더불어 김포공항발 국제선, 인도네시아, 몽골 노선 등 현재 보유 중인 B737-800 항공기로도 운항이 가능한 중단거리 노선 운수권 획득 준비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LCC 업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내선 비즈니스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내선에 비즈니스석을 가장 처음 도입한 제주항공은 최근 탑승률 70% 수준을 달성하며 승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누적 판매로는 약 7500석 규모에 달한다.

진에어는 김포~제주, 김포~부산 노선에 비즈니스석을 갖춘 B737-900 1대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 항공기 A330-300을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고 비즈니스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석 도입은 LCC 이용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간 수익성 확대를 기대하고 내놓은 서비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거리 노선은 단거리보다 운항 시간이 3배가까이 증가하고 인력도 늘어나 운영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 위험이 높지만 안정적으로 노선을 운영한다면 수익성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폭스바겐 신형 8세대 골프 주행 모습.

폭스바겐, 신형 8세대 골프·아테온 출시

상반기 가솔린 신형 골프 GTI 출시

폭스바겐 코리아가 5일 신형 8세대 골프와 신형 아테온을 동시 출시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쥔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사장 사샤 아스키지안은 "폭스바겐 코리아는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들에게 '합리적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 시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콘 신형 8세대 골프와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신형 아테온"이라고 설명했다.

신형 8세대 골프는 반세기에 걸친 골프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깔끔하고 정제된 라인, 완벽한 비율과 다이내믹한 실루엣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골프만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했다.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성능을 낸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7.8km다.

또 8세대 골프는 시속 210㎞까지 능동적으로 주행을 보조하는 트래블 어시스트를 포함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가 기본 적용됐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고성능 가솔린 모델 신형 골프 GTI도 출시하며 골프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8세대 골프의 국내 판매가격(개소세 인하분 3.5% 적용, 부가세 포함)은 ▲2.0 TDI 프리미엄 3625만4000원 ▲2.0 TDI 프레스티지 3782만5000원이며, 1월 프로모션 혜택 적용 시 3300만원대부터 구매 가능하다.

부분변경을 거쳐 새로 출시된 신형 아테온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세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형 아테온은 더욱 뚜렷해진 전면부 디자인과 날렵해진 캐릭터 라인으로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외관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LED 헤드라이트와 이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과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로 우아하고 스포티한 패스트백 디자인을 완성했다.

신형 아테온 역시 차세대 EA288 evo 2.0 TDI 엔진을 탑재했다. 이전 모델 대비 10마력 상승한 200마력의 최고출력과 40.8㎏·m의 최대토크를 발휘하는 동시에 15.5㎞/L의 복합연비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